

‘국민 과일’ 넘보는 망고

유통·물류 세계화 소비 변화

대중화로 수입물량 급증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일상화하고 국내 소비자의 외국산 제품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등 유통의 세계화에 따라 외국산 상품의 수입도 급격하게 늘고 있다. 특히 몇 년 전만 해도 ‘이색 열대과일’로 꼽히던 망고가 대중화하면서 올해 망고 수입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가하면 최고급 수산물이었던 랍스터도 인기리에 수입량이 늘고 있다. 특히 몇 년 전만 해도 ‘이색 열대과일’로 꼽히던 망고가 대중화하면서 올해 망고 수입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가하면 최고급 수산물이었던 랍스터도 인기리에 수입량이 늘고 있다.

◇망고 수입량 사상 최대...‘국민과일’ 넘본다=예전에는 특별한 날이나 먹는 귀한 과일이었던 바나나나 오렌지가 지금은 친숙한 과일이 됐듯이 이제 망고가 ‘국민 과일’로 도약하고 있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망고 수입량은 9235t, 수입 금액은 3664만 1000달러다. 수입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4988t)보다 85%나 증가했다. 올 들어 9개월간 수입 규모가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1년치 수입 총량인 6154t과 수입 금액 2420만달러를 이미 훌쩍 넘어섰다.



수산물계의 ‘큰 손’ 랍스터

망고는 20여년 전인 1995년에는 수입량이 2t에 불과한 생소한 과일이었다. 불과 5년전인 2009년에도 망고 수입 총량은 올해의 10분의 1 수준인 904t이었다.

그런데 해외 여행 중 동남아 등지에서 망고를 맛본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수요가 증가했다. 또 올해 초 오렌지 등 일부 수입과일 시세가 급등해 대체 과일 수요가 늘어난 점도 망고의 위상이 높아지는 데 한몫했다.

한국에 망고를 수출하는 나라도 1995년에는 필리핀뿐이었지만 올해는 필리핀을 포함해 호주, 파키스탄, 태국, 대만, 베트남, 중국, 미국 등으로 다양해졌다. 품종도 산지만큼이나 다양해져 까쥬, 호아록 등 베트남산 망고를 비롯해 그린망고, 애플망고, 킹 애플망고 등 다양각색의 망고를 시장에서 팔고 있다.



◇한국, 랍스터 시장 ‘큰 손’...현지서 국내 바이어 대우 달라질 정도=과일에 망고가 있다면 수산물 분야에서는 랍스터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른다. 한국이 세계 랍스터 시장의 ‘큰 손’으로 부상했다. 과거 최고급 수산물이었던 랍스터가 대중화하면서 수입량이 세계 6위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6일까지 국내에 들여와 검역을 마친 랍스터는 총 2290t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수입량 2555t의 90% 수준으로, 본격적인 랍스터 성수기인 10~12월 수입될 물량을 고려하면 올해도 수입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랍스터 수입량은 2011년 914t에서 2012년 1천212t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

했고, 이어 지난해는 수입물량이 전년의 2배 이상으로 폭증했다.

일본 원전 사태 이후 방사성 물질 오염 우려가 덜한 원거리 수산물 수요가 커진 가운데 대형마트들이 지난해 초부터 경쟁적으로 고급 수산물인 랍스터를 들여와 판매한데 따른 것이다. 이젠 일부 대형마트에서 마리당 1만원대 중반의 가격에 상시 판매가 될 정도로 대중화한 상태다.

수입량을 빠르게 늘려가는 대형마트의 구매 담당자들은 산지인 미국과 캐나다에서 ‘큰 손’ 대접을 받는 상황이다. 이마트는 지난해 연간 60만마리를 들여와 판매한 데 이어 올해는 지금까지 70만마리, 연말까지 100만마리 이상을 팔 계획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수입물량이 급증하면서 이젠 현지 업체들이 살아있는 랍스터가 최적의 상태로 국내 매장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국내 대형마트의 포장 방법과 단위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와인 수입량 6년째 증가 올 2만8000t 넘을 듯

와인 소비층이 넓어지면서 수입량도 6년째 증가하고 있다. 28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와인 수입량은 2009년 1만9192t을 기록한 이후 계속 늘어 작년에는 2만 7716t이었다. 올해는 9월 말 현재 2만1375t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연말까지 2만8000t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수입액도 늘어 2009년 1억720만9000 달러에서 작년에는 1억6415만4000달러로 뛰어올랐다. 올해는 지난해 1억 2920만5000달러에 이르고 있어 연말에는 작년 수입액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품목별 수입량 증가율은 발포성 포도주가 가장 컸다. 2009년에는 1029t이었던 데 반해 작년에는 3001t으로 191.6% 늘었다.

적포도주는 2009년 수입량이 1만4258t에서 작년 2만141t으로 41.3%, 백포도주는 2009년 3905t에서 작년에는 4574t으로 17.1% 증가했다.

수입국별로 살펴보면 칠레산 와인이 2009년 4956t에서 작년 7210t으로 45.5%, 프랑스산은 2729t에서 3761t으로 34.7% 늘었다.

또 이탈리아산은 같은 기간 2969t에서 4735t으로 59.5%, 미국산은 2378t에서 3372t으로 41.8%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와인을 마시고 선물하는 문화가 점차 자리를 잡아지면서 와인 수요가 늘고 수입량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모피, 리폼해서 입는다

경기침체에 중고제품 구입도 급증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의 여파로 고가의 신상품 모피를 구입하기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피를 리폼하거나 중고 리폼 모피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지역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모피 판매율이 가장 높은 기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존 모피 매장의 신장률은 약 1%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반해 중고 리폼 모피를 판매하는 리폼 모피 전문매장의 매출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부터 1월까지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매장을 운영했던 한 모피 리폼업체는 당초 예상했던 매출액의 200%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폼 모피에 대한 문의도 하루 평균 20건 이상에 달했다.

광주신세계도 다음달 20일까지 유행이 지난 모피나 밍크코트를 가져오면 전문가 상담 후 최신 스타일로 새롭게 리폼해 주거나 신세계상품권으로 보상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모피 리폼 서비스뿐만 아니라 중고 모피를 백화점상품권으로 매입하기도 하며, 신상품 못지 않은 중고 리폼 모피코트를 100만원 초반에서 후반대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28일 광주신세계 백화점에서 한 고객이 리폼한 모피를 입어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돼지고기 저지방 부위 인기

삼겹살값 제자리...앞다리살 등 20~60% ↑

최근 돼지고기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삼겹살 가격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그동안 웰빙 열풍에 삼겹살 소비가 부진해지면서 전체 돼지고기 가격에 미친 영향이 줄어든 반면, 저지방 부위는 수요가 점차 늘어 돼지고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8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돼지고기(1kg·탕박) 평균 도매가격은 4581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가량 높다.

같은 기간 삼겹살 도매가는 0.8% 상승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앞다리·뒷다리·안심 등 저지방 부위 도매가는 23~60%가량 올랐다.

이는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지방이 많이 함유된 삼겹살 대신 앞다리 등 저지방 부위 고기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롯데마트의 올해 9월까지 삼겹살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6.1% 감소했다. 그러나 앞다리·뒷다리·안심 매출은 각각 18.9%, 3.7%, 9.2% 늘었다.

또 햄과 소시지의 즉석제조와 판매가 가능해진 점도 돼지고기 저지방 부위 수요 증가에 일조했다고 마트 측은 분석했다.

연합뉴스

“수기동 제일아 매매”

- 29평 - 12층, 전체 올수리, 주거겸 사무실
매매가 7200만원
- 77평 - 20층,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전용
매매가 2억 7000만원
- 주인직매 : 010-3605-5000

“월산동 근린주택”

- 수리중입니다.
- 싸게 사서 싸게 팔 생각입니다.
- 곧 공개합니다.